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처답게 살라



봉은사 초청 법회,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

매주 봉은사에서 진행 중인 강주스님 초청 일요법회가 6월 19일 네 번째 시간을 맞았다. 이번 법회에는 화엄승가대학원 학장 해강 스님이 법석에 올라 '화엄'을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이날 화엄 사상의 법계 연기와 본래부처론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다. 해강 스님은 "법계의 연기는 '세계는 한 송이의 꽃'처럼 하나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처와 중생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삼업(三業)'을 잘 지어 부처다운 삶을 살라고 말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법계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방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한 · 중 · 일 한국불교 역사 속에서 화엄이 차지하는 위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꽃이다'라는 말입니다. 통일신라 의상 대사께서 화엄교학을 이 땅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화엄은 한국불교의 중심역할을 해왔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연기입니다. 이는 존재의 실상을 말합니다. 존재 실상 연기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의 현상세계를 불교는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교는 크게 두 개의 세계화를 보여줍니다. 존재 실상의 연기로서 지향해야 될 세계와 존재 실상의 무지에서 생겨나는 허상세계의 고통세계를 말합니다. 존재의 실상 연기의 세계와, 고통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이 세계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궁극적 이상적 가치관은 열반입니다. 고통의 해탈을 말합니다. 그런 궁극적인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인 바로 수행입니다.

화엄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낱낱의 존재들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늘 · 땅 · 산 · 강 ·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불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수많은 존재들은 서로서로에 의지해서 그 관계를 뿌리로 삼아, 각각 개개인의 존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정이든 무정이든, 사람이던, 사람이 아니던, 나무, 풀, 짐승이든 간에 나를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아닌 모든 존재들은 나를 성립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달리 말해 나를 낳은 어머니요, 나를 기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고, 이유이고, 결과가 됩니다. 때문에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둘이 아닌 불이의 존재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라고 설했습니다.

한 선사는 이를 일컬어 '세계일화'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한 송이 꽃이면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세상에서는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는 당신이 있을 때 우리 서로 행복했노라." 사랑은 '내 눈 속에 그대, 그대 눈 속에 나'인 것처럼, 사랑은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인 관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되면, 나는 그대를 바라보는데 그대 속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대는 나를 바라보지만 내 속에 있는 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닮아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나는 그대가 되고 그대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고, 누가 그대입니까. 나와 그대를 분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의 완성을 흔히, 둘이 하나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본래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랑의 궁극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이상향으로 묘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법계 연기의 존재 실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 모든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계의 눈으로,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꽃을 보면 꽃은 나고 나는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스님은 "보는 자가 꽃이면, 보이는 것이 더 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말이 바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세계일화'는 사랑의 관계 동체대비로 세상 바라봐야

오늘은 지장재일입니다. 지장보살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왜 울고 계십니까. 정답은 〈유마경〉의 유마 거사가 한 말 중에 들어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보살의 눈에 있어서 보살에게 중생은 사랑하는 님입니다. 부처에게 님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이 지옥문 앞에서 우는 것은, 중생들이 불쌍해서 동정심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파서 우는 것입니다. 유마와 지장보살의 사랑의 마음을 불교에서는 동체대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체대비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돌 하나도 소중한 가치를 가집니다. 법계의 연기로 세상을 보는 자에게는 나 아닌 세상 모든 존재들이 내 가슴속에, 심장 속에 알알이 박혀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중생의 고통이, 산 · 강이 파헤쳐지는 고통이 고스란히 밀려오는 것입니다. 밀려와야 합니다.

본래 부처니, 부처로 살아라

법계의 연기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화엄경〉에서 제시하는 가치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심불급중생시무차별(心佛衆生是三無差別)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들이 부처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반해, 〈화엄경〉은 부처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단지 부처답게만 살면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와 중생으로 나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 쓰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니다. 마음 쓰는 게 달라, 말쓰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결국 사는 게 다릅니다. 겉보기엔 모두 똑같지만 부처와 중생의 삶은 천양지차(天壤之差)입니다.

중생은 탐진치에 매여 살고, 부처는 탐진치를 떠나서 삽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 삶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부처는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중생은 중생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그대는 본래 부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부처처럼 마음 쓰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처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부처처럼 사시는 분과, 불교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부처님 세상은 모든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알면 알수록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바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행동 잘못해서, 마음 잘못써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냐면 무지 · 무명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립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모든 고통은 꽃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통은 모두 삶 속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말, 마음, 행동 이 삼업을 잘못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복도 그 삼업을 잘 쓰면서 비롯됩니다. 결국 삶에서 생겨난 문제는 삶속에서 고치고 없애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 부처처럼 쓰고
> 말하고 행동하라
> 그것이 부처처럼
> 사는 길이다

어떤 수행자가 큰 수행자인지 모를 때,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삼업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 쓰는지만 보면 진정한 수행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불교를 배우고 공부했는데,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여러분의 삼업이 조금씩 향기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수행을 잘못하고, 불교를 잘 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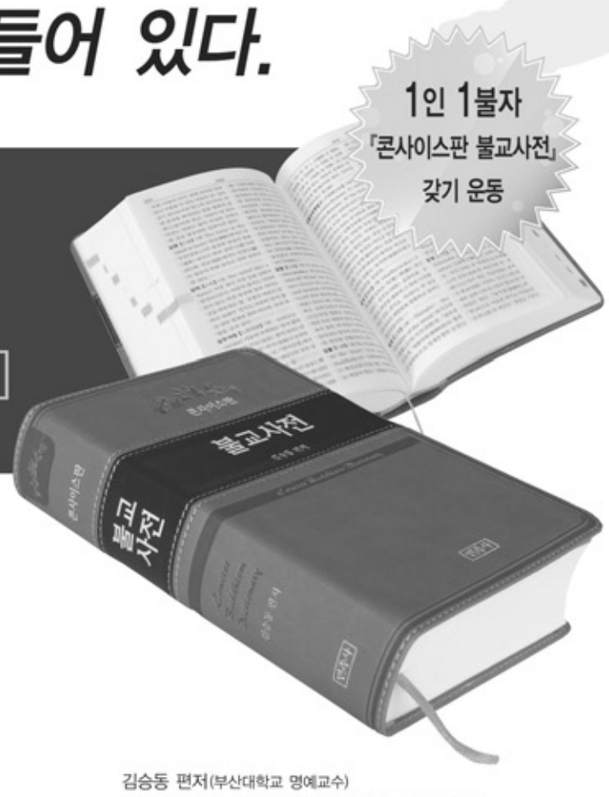
수행은 한만큼 드러나게 돼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이 중생의 원력과 불보살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업력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삼업이 맑으면 세상을 맑고, 내가 세상에서 삼업이 탁하면 탁한 세상이 됩니다. 본래 부처인 내가, 충만한 삶을 살면 나의 삶은 그러한 나와 네가 우리의 세상이 불국정토가 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대가 부처니 부처답게 살라." 순간순간 내가 부처답게 말하고, 마음 쓰고, 행동하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수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단 1초라고 그 순간 부처의 마음으로 살면, 그 1초는 부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삶을 부처님 삼업으로 채워간다면 부처로서 부처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입니다.

불자들 간의 선물도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불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Concise Buddhism Dictionary

사찰의 각종 행사 때, 불교대학 졸업식 때,
선물은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으로 합시다.



김승동 편저(부산대학교 명예교수)
117×178mm / 고급 사전 용지 사용 / 1,216쪽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특수 제본 / 값 38,000원

알고 싶은 것, 궁금한 것은
즉시 해결해야만 지식으로 승화된다.

『콘사이스판 불교사전』의 특징

1.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불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단어 4,950여 개 항목을 엄선했다.
2.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 · 명확 · 풍부하다.
3.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4.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고급 사전 용지를 사용해 두께가 3.2cm로 가볍다.
5.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한 단어만 찾아도 관련 지식이 쏟아진다. 부처님 생애는 물론,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일본불교의 역사와 초기 · 원시 · 부파 · 대승불교 그리고 밀교의 교리와 역사 · 사상 · 철학 · 문화가 다 서술되어 있다. 특히 반야,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대승불교, 선사상, 무아, 열반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성립과 기원, 변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서술되어 있다.

구입 문의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법보시 주문받습니다.